

에이즈감염-성접촉, 주사기공용, 수혈, 수직감염 순

HIV (에이즈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첫째, 동성 및 이성간의 성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전체 감염의 약 75%를 차지하고, 둘째, 감염자가 사용하였던 주사침을 다시 사용하거나 HIV감염자의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수혈, 셋째,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의 수직 감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V에 처음 감염된지 약 3-6주 후에 감염자의 50-70%에서 급성 HIV 증후군이라는 몸살 같은 증상으로 고열, 두통, 인후통, 관절 및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구역, 구토, 설사 등을 호소하며 신체검사 상 림프절 종대 및 홍반 등이 발생하고 발초 신경장애나 뇌척수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 증상들은 HIV에 대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면서 사라지고 그후 증상이 없는 임상적 잠복기가 약 10년 정도 지속된다. 그러나 이들 증상들은 타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증상들만으로 HIV 감염을 의심하기는 곤란하다.

감염자 체액의 위험성은 바이러스 농도와 노출에 관련된 혈액량 등에 따라 다르다. AIDS 환자나 급성 HIV 증후군 환자는 증상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바이러스 농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HIV 감염자라 할지라도 성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지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콘돔은 HIV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용법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100% 예방할 수 없다. 실재 피임을 목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 10%의 실패율이 있다.

HIV에 오염된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피부를 관통하는 상처를 입은 경우 감염될 확률은 0.3%정도이고 눈이나 코 등의 점막이 노출된 경우 0.09%, 피부노출의 경우 0.1% 이하로 점막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HIV 감염의 위험성은 최소한 피부를 관통하는 상처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액에서 HIV가 검출되나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포함된 바이러스량이 적어 감염되지 않으나 혈액이 혼합되어 있고 상대방의 구강 내에 염증이거나 상처가 있으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HIV에 오염된 주사침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당했을 경우는 가능한 많은 피를 짜낸 후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AIDS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하며 점막에 노출된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접촉으로 인해 감염자로부터 HIV에 감염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은데 통상적인 일상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A**

조 근 제 / 부산대 의대 교수

